

BUILD
OUR
OWN
KNOWLEDGE

#1

발행인 : 이승재

편집인 : 고은이

발행처 :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도안동, 목원대학교)

전화 : 042) 829-7605

홈페이지 : <http://archi.mokwon.ac.kr/>

CONTENTS

01 ACTIVITY

02 BOOK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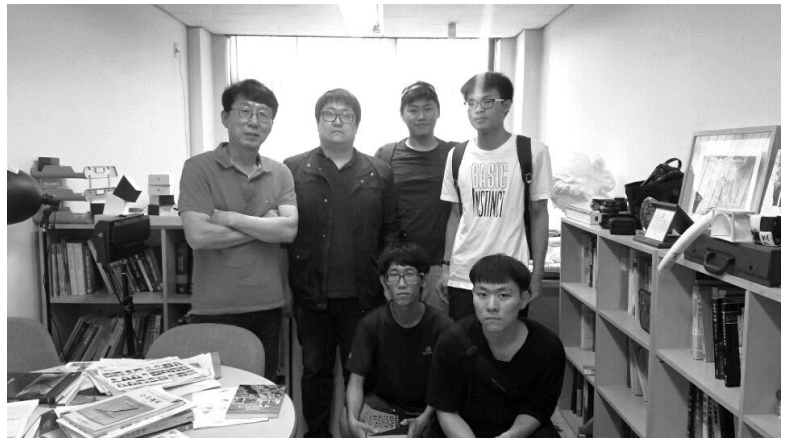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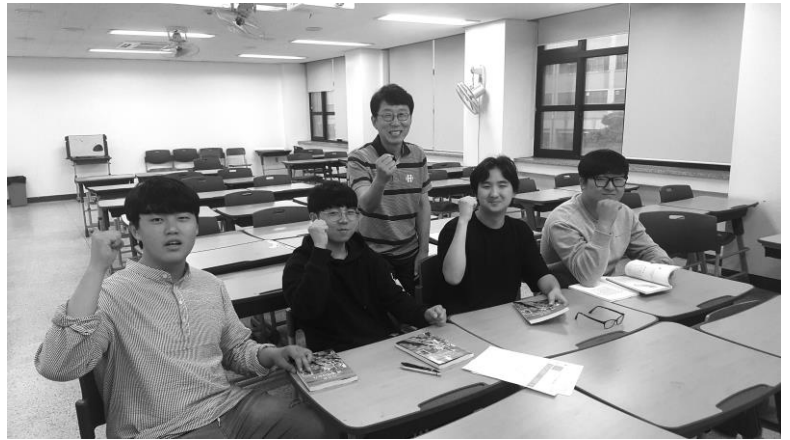
03 READING POSTER

04 PARTICIPATORY REVIEW

05 RECOMMENDED BOOKS







O1 ACTIVITY

B.O.O.K 활동 내용

1. 참여 학생 구성

- 5~8인의 그룹으로 고학년(3학년 이상)과 저학년(1,2학년) 학생의 비율을 적절히 배분하여 구성

2. 도서의 선정

- 폭넓은 전공관련 교양을 습득하고 건축 전방에 대해 사고해 볼 수 있는 기화를 마련할 도서 선택

3. 활동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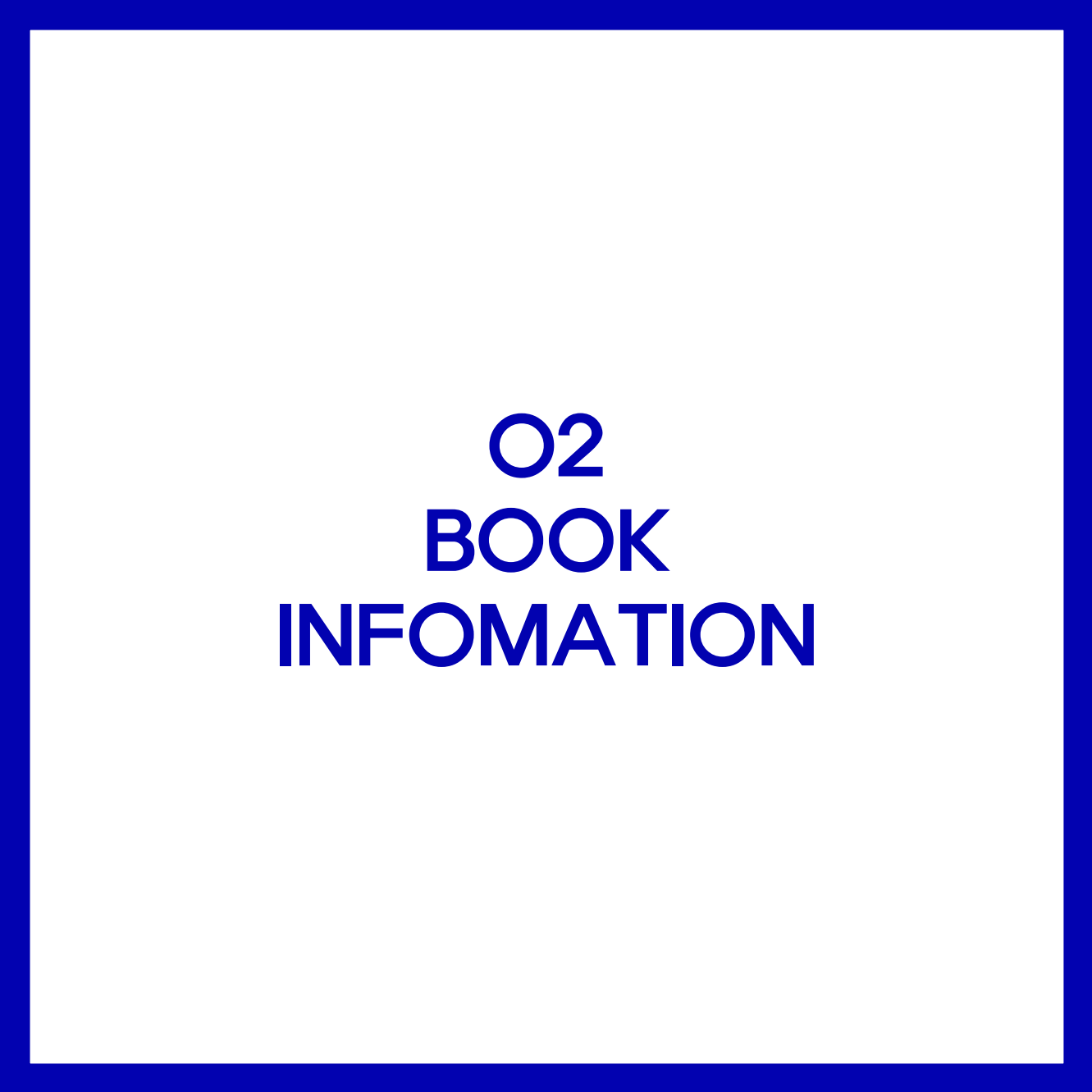
- 1) 그룹 내 학생들의 자율적인 독서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주1회 1시간 이상 그룹미팅을 가짐
- 2) 주차 별 활동 확인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가 활동 및 교육내용 확인
- 3) 4주차 독서활동 발표 시에는 그룹 간 미팅을 통하여 상호 활동내용 교류

4. 결과물의 제출

- 1) 독서노트 1페이지(가장 대표되는 페이지) 스캔파일
- 2) 독서 포스터 1매

5. 우수학생 추천

- 매 학기 종료 후(3회차 분) 각 지도교수 별 1인의 독서활동 우수학생을 추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O2 BOOK INFORMATION

도시 건축의 새로운 상상력

이 책의 무대는 서울로 대표되는 한국의 도시다.

저자는 “서울은 한국 그 자체이면서 모든 문제와 가능성을 가진 독특한 존재”라고 표현한다.

이런 현실에서 그간 소수이긴 하지만 ‘건물’과 구별되는 ‘건축’의 가치를 추구하며 노력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서양의 건축론은 훌륭한 참고서이기는 하지만 세계 최고 밀도를 가진 한국의 도시에서 양의 문제를 어떻게 질의 문제로 바꾸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서구의 역사와 이론, 설계 교육의 중심은 늘 질의 문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건축의 이면에 깔린 그들의 도시 문제는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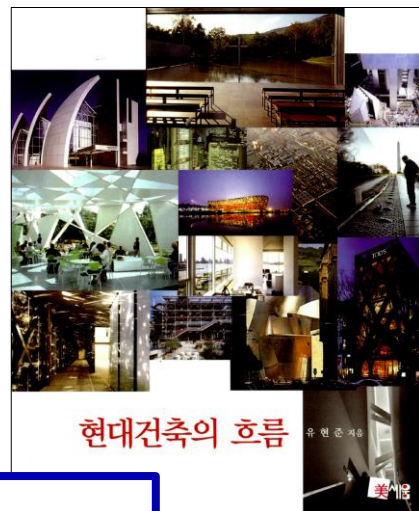
더구나 근대 건축 거장들의 생각을 답습하는 건축 이론은 조건이 다른 한국의 도시에서는 설득력이 없다.

이 책은 우리 도시 건축의 현상과 조건을 진단하고 혁신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기 위해 한국 건축과 도시의 문제, 즉 이질성과 모순을 봉합하기보다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현상을 조명하고 세계의 보편적 흐름과 비교한다. 책의 제4장 ‘서울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에서는 왜 간판이 도시 경관을 압도하는지, 큰길과 뒷골목이 왜 이처럼 다른지, 세계 도시에 비해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건축이 다른 세계 도시와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는지 하나하나 풀어 간다.



현대 건축의 흐름



이 책은 반 백년 동안 건축이 만들어낸 중요한 이슈들을 작품 중심으로 풀어가면서 마지막 장에서는 어떠한 건축가가 21세기의 건축대가가 될지를 예측하고 있다. 저자는 20세기 후반의 건축을 논하면서, 건축은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여 나타나는 결과물인데 20세기 후반부의 사람들의 생활상은 인터넷과 휴대폰이 있기는 하지만, 20세기 초반에 발명된 전화, 자동차, 비행기, TV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전시대의 거장들에 비견될만한 대형 건축가들이 나오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다가올 시대는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세상과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며, 이에 맞추어서 새로운 건축과 대가들이 출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자는 또한 최근 들어서 보이는 건축, 패션, 산업디자인 등 각종 디자인분야의 융합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를 각 분야의 작가들이 모두 같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디자인-제작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다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다음 시대의 대가는?

이 땅에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바람이다.

필로아키텍처



이 책은 우선 현대건축을 다루기에 앞서서 근대건축에 나타난 공간론에 대한 비판으로 출발하고 있다. 근대건축의 공간론적 특징을 시각중심주의로 규정하고, 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어서 근대건축과 공간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현대건축의 노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현상학자인 메를로퐁티의 공간론과 이에 바탕을 둔 스티븐 홀의 건축 작업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은 해체주의를 주도하였던 베르나르 추미의 건축과 사라짐의 미학을 추구한 장 누벨의 건축에 전제된 공간론의 철학적 의미와 그 한계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현대건축의 문제가 지닌 단면을 보이고자 하였다. 나아가 최근 등장한 디지털 건축의 특징을 디지털 매체에 초점을 두고 ‘다이어그램’의 용어에 주목하여 분석함으로써 현대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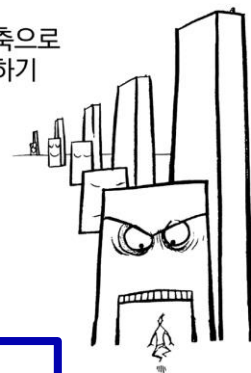
이 책은 오늘날 무성한 담론을 쏟아내고 있는 현대건축에 대한 철학적 비판 작업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책은 건축적 이상을 고민하는 건축 전공자는 물론이고 현대 문명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즐거운 자극이 되리라 여겨진다.

건축으로 말하기

가치관이 충돌하고 산업과 과학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던 1950년대, 유진 라스킨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건축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현대건축에서 벗어나 인간의 행동과 감정에서 건축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인문학적 시각이다. 저자는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축에 관련된 심리적, 생리학적 개념들을 연구하여 가장 기본적인 건축의 주제들을 명쾌하게 정리하였다.

건축이 무엇인가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건축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매우 개념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인간 행동의 결과로, 인간의 의미를 표현하는 창조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을 구체화시키는 스타일, 스케일, 비례, 시퀀스, 독창성 등 개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열한 가지 키워드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따로 또 같이 만들어지는 핵심 요소들이다. 인간의 감각과 감정에서 출발한 이 건축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건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건축은 시대와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오랜 시간, 건축은 그렇게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새로운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갖게 된다. 건축을 읽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빈 껍질을 경험할 뿐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다. 이제 건축을 느끼고 이야기해보자.

ARCHITECTURALLY
SPEAKING건축으로
말하기

pixelhouse

건축물의 구조 이야기

우리가 머무는 집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다리, 건물과 같은 다양한 건축물들은 우리 일상 세계를 이루는 한 부분이다. 이런 건축물들 속에는 건축물을 지탱해주는 구조가 있고, 그 구조는 과학의 원리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건축물 속에는 어떤 과학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아슬아슬하게 우뚝 서있는 가느다란 탑, 바람에도 끄떡 없는 지붕, 층층이 무게를 견디며 서 있는 빌딩까지. 그 속에 숨겨진 과학의 원리를 찾아 떠나는 세계 건축 여행!

우리는 의자, 탁자, 육교, 다리, 빌딩 등 친숙한 것에서부터 색다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사물을 매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조에 대한 직관’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책상의 상판이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 의자가 우리의 몸을 지탱해줄 수 있는 이유 등 그 속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는다. 『과학으로 재밌게 풀어 본 건축물의 구조 이야기』에서는 늘 접하는 의자와 탁자부터 다리, 빌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물과 세계의 걸작 건축물의 구조를 들여다보며 그 속에 어떤 과학 원리가 담겨 있는지 알아보는 세계 건축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다.



지진은 왜 일어나는가



이 책은 판구조론과 지진정시기와 같은 지진과 화산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명백하고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100가지 이상의 사례를 들어 일반독자와 전문가를 위해 기술적인 문제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지구에 대한 이야기부터 지진학의 탄생, 지진 그리고 면진 및 대처방안까지 지진에 집중된 이야기를 한다. 특히 다양한 도표와 그림이 사용되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이 책의 큰 장점이다.

*목차구성

금이 간 달걀 / 불의 여신 / 별칸의 산 / 1755년의 리스본의 지진 / 지진학의 탄생 / 지진측정 / 관동 대지진 / 내진 / 대단층 / 앵커리지 지진 3분 / 전조와 예측 / 면진 / 사회적 중요성 : 규준과 공공정책 / 위험과 준비 / 빅뱅의 메아리

건축의 재구성

이 책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건축 연구소에서 '건축의 재구성'이라는 명제로 연구되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오프 사이트 제작에서부터 혁신적인 벽의 조립, 새로운 방식의 유형과 조립을 활용하는 인테리어 부품에 이르기 까지 다방면의 연구 결과를 엮어 출간했다. 또한 20세기 건축의 실패 원인과 예술과 실용을 충족시키는 건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차구성

- 1장 공정기술자와 건축의 미학
- 2장 새로운 건축세계에서의 역할 재조명
- 3장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
- 4장 보이지 않는 공정
- 5장 건축
- 6장 건축의 대량맞춤
- 7장 급격한 변화 대신 점진적 발전



건축, 권력과 욕망을 말하다

이 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인간집단과 제도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서의 건축의 모습을 다방면에서 추적한다.

왜 대기업 사옥의 1층 로비는 언제나 널찍하니 텅텅 비어 있는지,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몇 번씩 타는 익숙한 공간인데 왜 탈 때마다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지,
왜 아파트는 실물을 보지도 않고 미리 계약을 하는 지 등 우리 주변의 공간과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사진과 함께 만나본다.

모든 건축에는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특정 메시지가 있다.

사찰과 성당, 교회 등의 종교건축은 인간은 나약하지만 신은 위대하고,

현생은 찰나와도 같지만 사후의 영생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이다.

교도소는 교도에 의해 인간이 교정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병원은 치료에 의해 인간이 치유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학교는 교육에 의해 인간이 육성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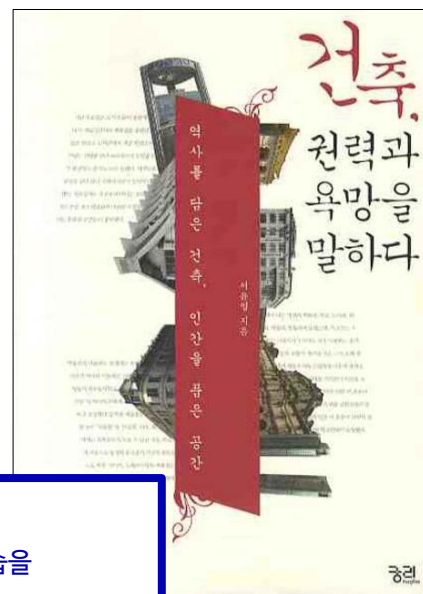
흔히 건축을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 하여 주로 사용자의 편의에 맞추어 설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둥근 그릇 속에 담긴 물이 둥근 모양을 가지듯, 특정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 건축이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주위의 공간과 건축물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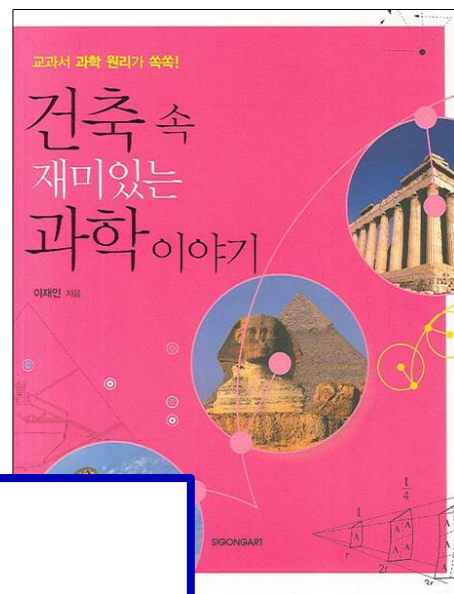
건축은 미적 감흥을 주기 위한 오브제인가, 아니면 기능과 구조를 통해 인간에게 실용성을 주기 위한 도구인가.

정치, 사회, 역사 예술 분야에서 건축과 공간은 어떤 역할들을 해왔을까.

이 책과 함께 건축의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결국 우리 인간을 더 한층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이 책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빌딩 바람과 바람탑의 원리를 시작으로 유리집과 빛의 굴절과 반사, 피라미드를 통한 콘크리트와 모래 이야기, 엘리베이터와 장력, 화장실과 사이펀 원리, 건물의 흔들림과 진동, 아트리움을 통한 단열과 열의 이동 등 총 18가지의 주제로 건축과 과학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2007.1.20) 강원도 강릉 서쪽 28킬로미터에서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책은 지진의 원인을 찾는 과학적 이야기부터 건축에서 어떤 식으로 지진 진동을 제어하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은행문이 왜 안쪽으로만 열리도록 설계되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안에 숨겨진 행동과학 분야를 다루어 심리 사회적 과학에도 학생들이 눈뜨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건물 형태와 소리와의 관계, 캔틸레버를 통한 힘의 작용점 이해, 백화현상의 화학적 원인, 익스팬션 조인트를 통한 팽창과 수축이야기, 건물의 기울어짐과 지표 변화, 최소 면적과 최소 공간 개념 이해, 서양의 플러스, 마이너스와 동양의 음과 양을 비교하면서 Yin&Yang 개념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주제와 참신한 과학적 시각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이렇듯 유쾌하고 즐거운 건축과 과학의 만남을 통해 독자들은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생활 속 과학 원리를 새롭게 깨닫게 될 것이다.

건축을 뒤바꾼 아이디어 100

“이 책은 어디를 펴보아도 좋다. 그러나 알고 싶은 목적이 서야 그 항목이 읽힌다.
그렇게 읽어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 문장이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안내해 준다.
그리고 다른 책을 읽을 때 옆에 두고 같이 읽으면 더 ‘넓은’ 내용으로 안내를 해 준다.
더구나 신중하게 선택한 사진은 건축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더 없는 감상거리다.
어쩌다가 내용을 읽을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 사진만 보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봐도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흔히 어떤 전공의 입문서를 찾는다.
그러나 ‘입문서’란 그저 읽기 쉽고, 읽은 다음에는 어디에 꽂혀 있는지 잊어 버리는 책이 아닐 것이다.

이 책은 오랜 시간을 통해 전개된 건축에 대한 인간의 생각(아이디어)을 폭넓게 알려 준다.
그런가 하면 구조, 사회, 공간, 표현, 개념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생각을 잘 읽을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렇게 보면 건축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마음으로 읽게 해 주는 독특한 입문서다.
그래서 이 책은 쉽지만 약간은 어렵고, 어려운가 하면 아주 쉽게 건축을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수많은 책을 읽지 않고도 전체를 꿰뚫어 보는 눈을 길러 주는 입문서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서 이 책은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서가에 늘 꽂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건축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교양서로서도 아주 좋은 책이다.
만일 내가 한 권의 책으로 일반인에게 건축 전반을 쉽게 가르치게 된다면, 이 책을 교재로 하여 가르치고 싶다.”

- 율킨이의 글 중



건축이 태어나는 순간

건축이 태어나는 순간

후지모토 소우 Soa Fujimoto 지음 · 정영희 옮김



보이지 않는 건축

이 주택 안에서는 건축이 보이지 않는다. 단지 밝음과 투명도의 절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변화의 흔들림 속에 사람이 산다. 건축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감지하기 위한 틀이 된다. 이를 통해 건축의 근원적인 본질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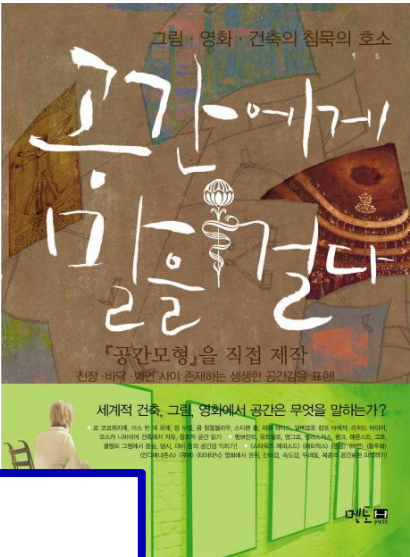
사이의 건축

간유리를 포개 넣어 만든 구성이 도시와 집 ‘사이’에 본래 존재하는 다양한 중간 영역에 형태를 부여한다. 개인적인 공간에서 집에 가까운 공간으로, 집에 가까운 공간에서 도시에 가까운 공간으로, 도시에 가까운 공간에서 도시로 확산되는 공간으로. 즉 각 영역의 단계적인 변화가 건축이 된다. 도시에서 사는 재미와 즐거움은 그와 같은 풍부한 중간 영역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개인적인 장소와 도시 ‘사이’를 디자인했다.

‘넓이’가 아니라 ‘다양함’

부지가 작은 소규모 주택이기 때문에 좁지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영역의 단계적인 변화가 이런저런 장소를 만들어낸다. 공간이나 형태뿐만 아니라 ‘사이’를 걸으며 드러내는 건축에 중점을 두었다.

공간에게 말을 걸다



건축물이 사람이라면 공간은 마음이다!
공간이 전하는 시간, 사랑, 희망, 지혜, 깨달음, 진리, 믿음, 신, 평화의 메시지!

이 책은 '공간'의 흥미로운 세계를 탐험한다. 건축의 기본이 되는 공간과 형태의 구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다. 건축가 조재현은 공간에 대해 알아가면 갈수록 그 근본은 바로 사람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 공간을 느끼는 것은 사람이었고, 공간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었고, 공간을 만드는 목적도 사람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 최고의 공간들에 이르기까지, 공간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한다. 저자는 지난 3년간 공간모형 제작에 몰두하였다. 이렇게 만든 모형에 독자적인 특수조명을 살려 약 1500장의 모형사진을 찍었다.

또한 각 공간유형에 맞는 사례를 건축, 그림, 영화에서 찾아내는 데 주력하였다. 건축에서 약 700가지 사례, 영화에서 400장면, 그림에서 30점 정도를 선택하였다. 여기에 공간모형 사진을 더해 총 800장 이상의 사진을 실었다. 각 장의 끝부분에는 〈대화〉코너를 마련하여 좀 더 느슨하게 공간이야기를 들려준다. 공간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도와준다.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일상을 바꾸는 공간의 과학, 공간의 미래!

《행복의 건축》에서 알랭 드 보통이 말한 것처럼,

“장소가 달라지면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사람도 달라진다.

환경은 늘 우리의 생각과 감정, 신체 반응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다.

신경과학자이자 디자인 컨설턴트인 콜린 엘러드는 이 책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에서
공간과 마음의 상호작용이라는 야심찬 질문을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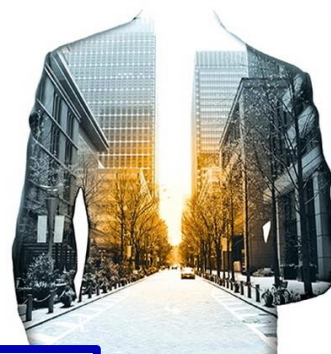
저자는 인간이 건축을 통해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 두 공간은 또한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인간의 다양한 정서를
중심축으로 삼아 흥미진진하게 설명한다. 자신의 개인사와 대중의 관심사,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재치 있게 엮어내는가 하면, 여러 신경과학자, 건축학자들이
새로운 기술에서 얻은 통찰도 소개한다.

자연에 끌리는 인간의 본능을 필두로 사랑, 욕망(쾌락과 전율), 권태, 불안, 경외감을
키워드로 삼아 흥미로운 사실들과 신경과학자들의 고군분투기를 풀어낸다.

나아가 익숙한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기술들이 나날이 개발되는 환경에 끼칠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할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묻는다.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마음을 지배하는 공간의 비밀 | 콜린 엘러드 지음 | 문학과 지성 | 288쪽 | 15,000원



《행복의 건축》에서 행복하고, 창의적이며, 인식하는가
신경과학자 교수

의 경·학제와 권위의 신원성
의 심리학·뇌의 마음을 읽는 공간

더 북스

꿀, 좋다!

자연에서 디자인을 배우다!

오감이 닿는 모든 것이 담긴 디자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삶의 모습을 전망하는 「ESSAYS ON DESIGN」 제8권 『꿀, 좋다!』.

스쿠프, 티뷰론, 소나타, 산타페 등의 자동차를 디자인한 한국 자동차 디자인의 전설 박종서가,
자신이 자연에서 배운 디자인 46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자연 속에 가장 완전하고 훌륭하며 위대한 디자인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우리 시대 모든 배 디자인을 명쾌하게 대변하는 '갈대배'를 출발점으로,

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도깨비 풀의 원리를 이용한 '벨크로',

게의 다리처럼 관절을 꺾으며 일하는 '굴삭기' 등

일상에서 만나는 사소한 사물에도 관심을 기울여 아주 재미있는 자연의 디자인을 발견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우리는 자연을 보지 않는다. 본다기보다는 자연을 그냥 스쳐 지나간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의 형태나 빛깔 그리고 자연이 끝없이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시선을 멈추고 잠시라도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연은 어김없이 먼지를 털고 고개를 치켜들 것이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순간처럼 전연 낯선 얼굴로 우리 앞에 다가설 것이다.

〈꿀, 좋다!〉에 소개된 자연에서 배우는 디자인 46가지.

그것은 은밀하고도 즐거운 자연의 위대한 디자인을 찾아가는 보물 지도다.



철학으로 읽는 옛집

철학으로 읽는 옛집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왜 건축에
중독되었는가?

유리창 2방방아출과 방단
산청에 1도산재당
과문 송서도 1대산재당
김장생의 이야기
한양도, 송암고택
한자학, 남한강터 1 송암고택
국립한성조 1 사진 유동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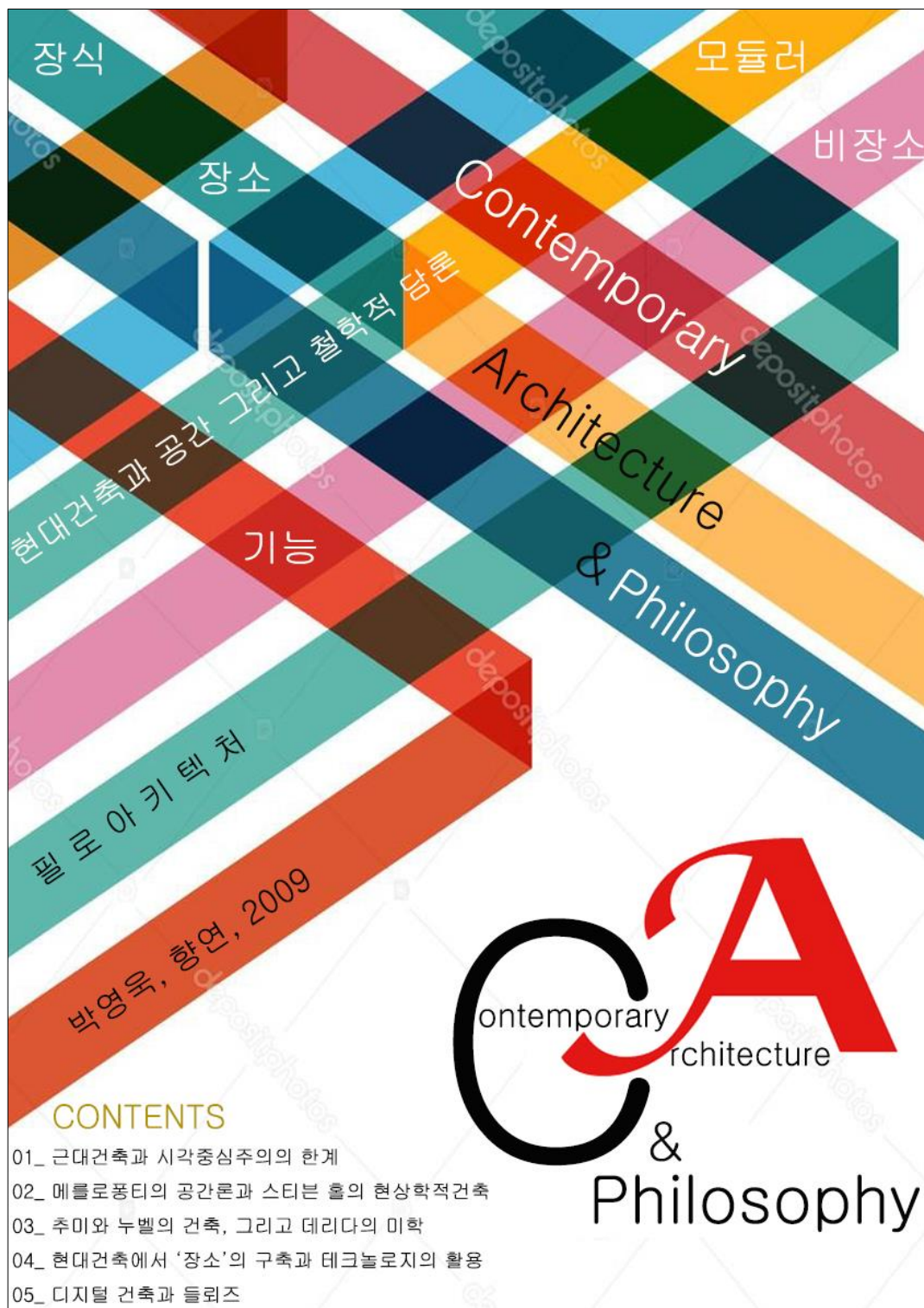
집 짓는 시인 함성호가 전하는 옛집의 마음!

이 책은 시인이면서 건축가인 작가 함성호가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이 지은 옛집을 답사하여, 옛집과 옛집을 둘러싼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이연적, 윤선도, 김장생 등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이 직접 지은 집들만을 골라 시인의 찬찬한 눈으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왜 거기에 집을 지어야만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 집과 그 집을 지었던 사람의 생각과, 무엇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 집이 가진 본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년간의 답사와 옛 서적들을 참고하여 성실하게 이야기들을 밝혀나갔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옛집을 만나보며, 단순히 집이 가진 조형적 아름다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집이 자리한 위치와 집에 얹힌 이야기와 집이 말하고자 하는 생각과 철학까지 아울러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건축의 범주는 집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집을 지은 사람과 그의 삶, 때로는 그가 좋아하던 시 한 편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은 보여준다. 즉, 집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듣지 않고서는 집에 대해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책은 집에 얹힌 이야기들을 풍부한 사진과 설명을 곁들여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O3
READING
POSTER





고 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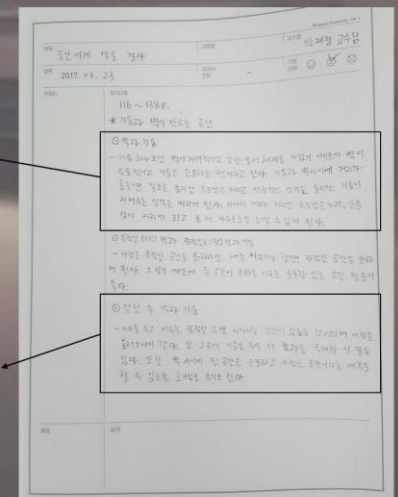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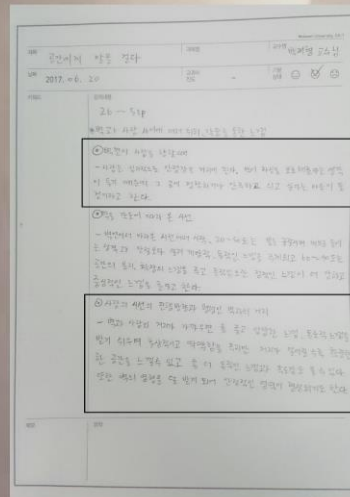
바 채운 벽과 기둥, 천장과 바닥을 여러 각도,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느껴짐과 같은 구조이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분위기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스케치와 모형을 사진으로 사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독자들이 사진을 통해 좀 더 작가가 분류한 유형에 대해 공간,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았습니다. 그 공간을 만든 사람에 목적도 생각해보고 그 공간을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공간에게 말을 걸다

멘토 프레스

2009년

조재현(저)



과학 원리로 재밌게 풀어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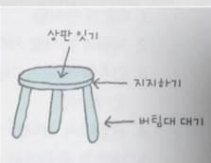
건축물의 구조 이야기

저 자 : 미셸 프로보스트 & 필리프 드 케메테르

출 판 사 : 그린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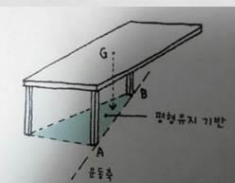
출판년도 : 2013년 4월

건축공학 1502008 김경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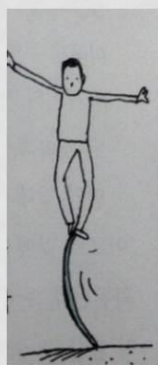


구조의 세가지 기능

1. 상판 잇기
2. 지지하기
3. 버팀대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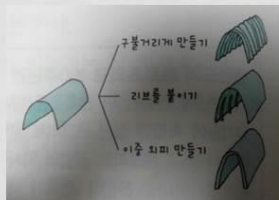
세 개의 다리 위에 직사각형 판을 얹은 탁자 자체는 안정적이거나 외부 힘이 작용하면 불안해진다.



인장력이 작용하면 자동적으로 서로 정렬되어 안정적이지만 압축력은 엄격하게 정렬되지 않으면 힘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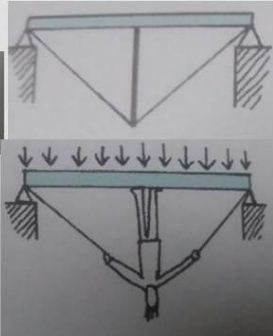


인장력을 이용한 케이블로 기둥의 수를 줄여 경관을 좋게 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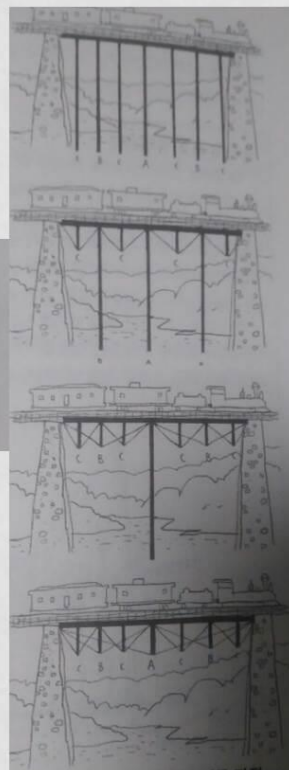


판을 주름지게 해서 하중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을 절판구조라고 하는데 지붕을 만들때 절판 구조를 이용하면 경제적으로 좋고, 무늬나 모양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형태적으로도 좋다.

구조의 이해시간 때 트러스 구조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음보를 설치할 때 생각없이 연결했다. 근데 이음보는 인장력이 생기는 방향으로 연결하면 더 경제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미리 반대로 당겨진 보는 케이블의 장력이 지주를 압축하고 압축된 지주가 아래에서 위로 보에 외력을 가해 보가 휘어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핑크트러스교라고 한다. 이것을 이용한 미국의 린치버그 시 근교 다리는 신기했다.



아! 신난다!

영, 혼, 욕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된
이 시대의 건축가들을 만나보자.

유현준
김수빈
리차드마이어
다다오-안도
아이엠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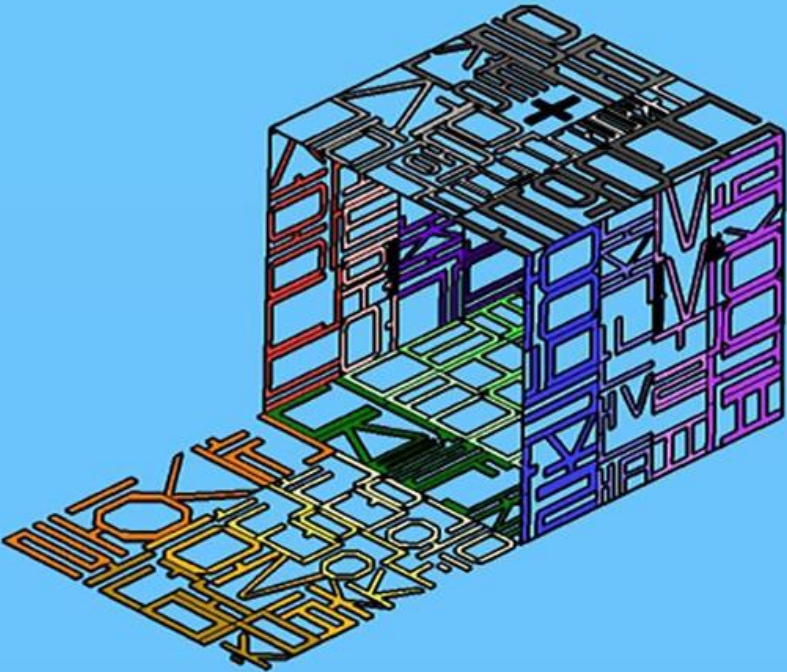


건축가들과의 가슴 설레는 散策!
그들의 숨결을 느껴보자!

2009년-10월 15일 그들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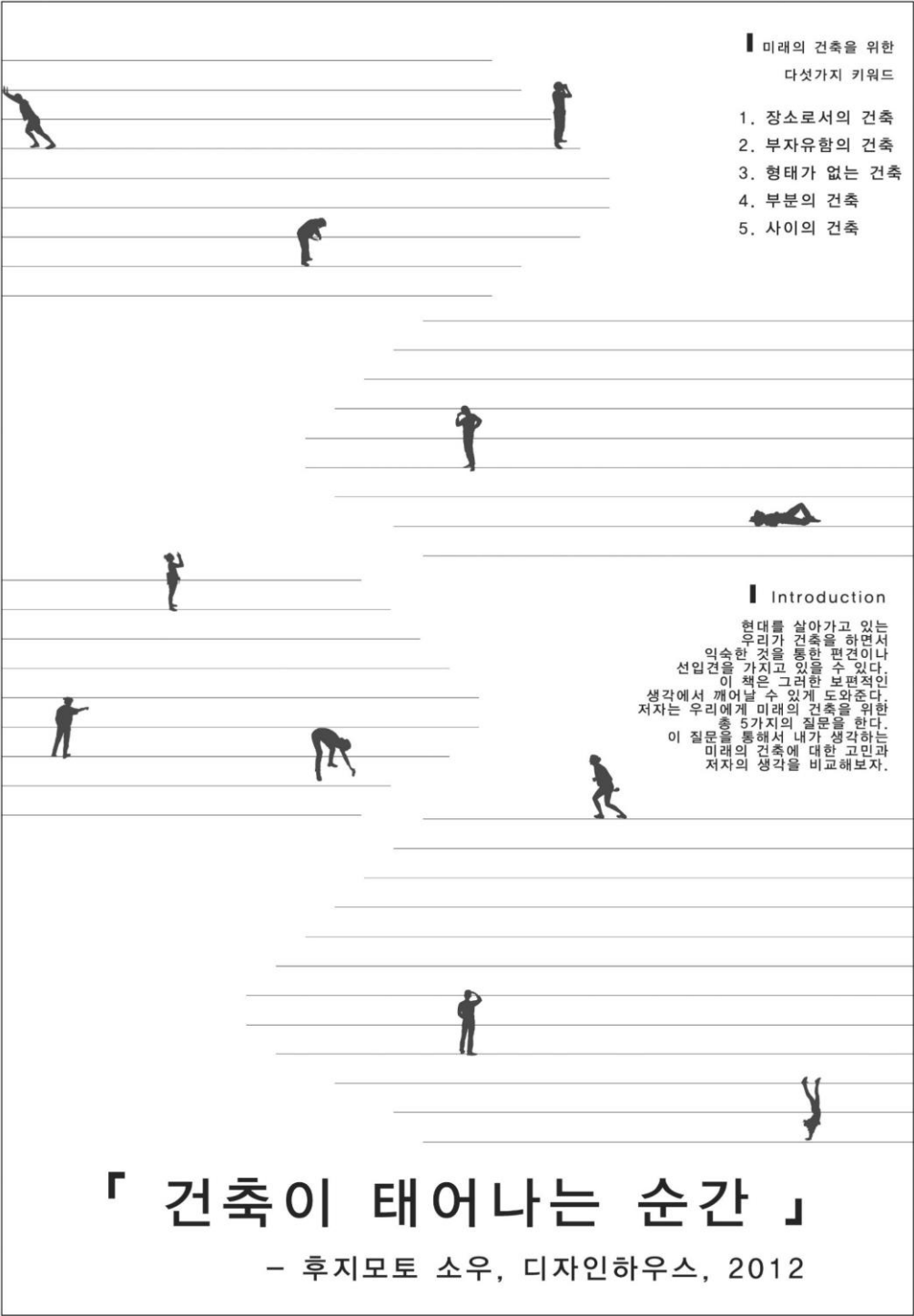
현대建築의 - 흐름





현대건축의
형

140-012



제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만든 구조물들은 우리가 이미 발견하였거나,
아직 보지 못했을 뿐 그들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고
한점을 완성하고 있다.

자연에서 배우는 디자인

좋다!

NATURE

부정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고,
무엇보다 우선이며,
저마다 고유하다.



자체로 완벽하고

만물의 영장은 오묘한 자연 구조의 복원으로 부터 영감을 생각으로
공정한 기하학적 질서의 틀을 만들고 그 속에서 구조의 복원을
실현하여 물면의 무늬를 만들기 시작했다.

SNAIL - SHELL (스네일-셸) 나선형이란 것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지혜롭게 설계하게 하는데, 더욱 완벽하게 하고 해석한다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다들 아시다시피 건축가들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예를 들어, 나무는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생장하는지, 어떻게 생장하는지, 어떻게 생장하는지.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예를 들어, 나무는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생장하는지, 어떻게 생장하는지, 어떻게 생장하는지.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폴린 엘러드



공간이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이 공간을 만든다.



SPEAKING ARCHITECTURALLY

Eugene Raskin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행동의 결과다.
건축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사용하며 인간이 감상한다.
때로는 인간이 파괴하고 인간이 잘못 사용하며
인간이 싫어하기도 한다.

Architecture

인간 건축을 정의하기 위해 한 단어만
사용해야 한다면, 건축은 '인간'이다.
감동이 위대하면 건축도 위대하다.
감동이 없다면 건축도 없다.
오직 건물만 있을 뿐이다.

Originality

오리지널이란 단어는 행한이나 출생을 뜻한다.
그래서 독창성은
행한이 창조자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에게'이다.
독창성은 디자이너의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Proportion

각각의 경우 자신만의 비례가 필요하다.
모든 것에 적용되는 비율 공식은 없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너무 게을러서 각각의 문제를
비율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결실을 사용자를 혼란시킨다.

Composition

구성이란 특정한 방식으로
시각을 배치하는 것을 다루는 수동 기술 개념이다.
그것이 단지 '잘' 또는 '흥미적으로'
'성공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Functionalism

기능에는 어떤 이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음은 건축 혁명의 시작,
과정의 진해를 향상하는 건강한 절차,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새로운 이상을 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주장했다.

Architecture
Compositon
Proportion
Originality
Style
Unity
Scale
Rhythm
Sequence
Characer & Honesty

Style
Unity
Scale
Rhythm
Sequence
Characer & Honesty



S P A C E

로버트 로빈슨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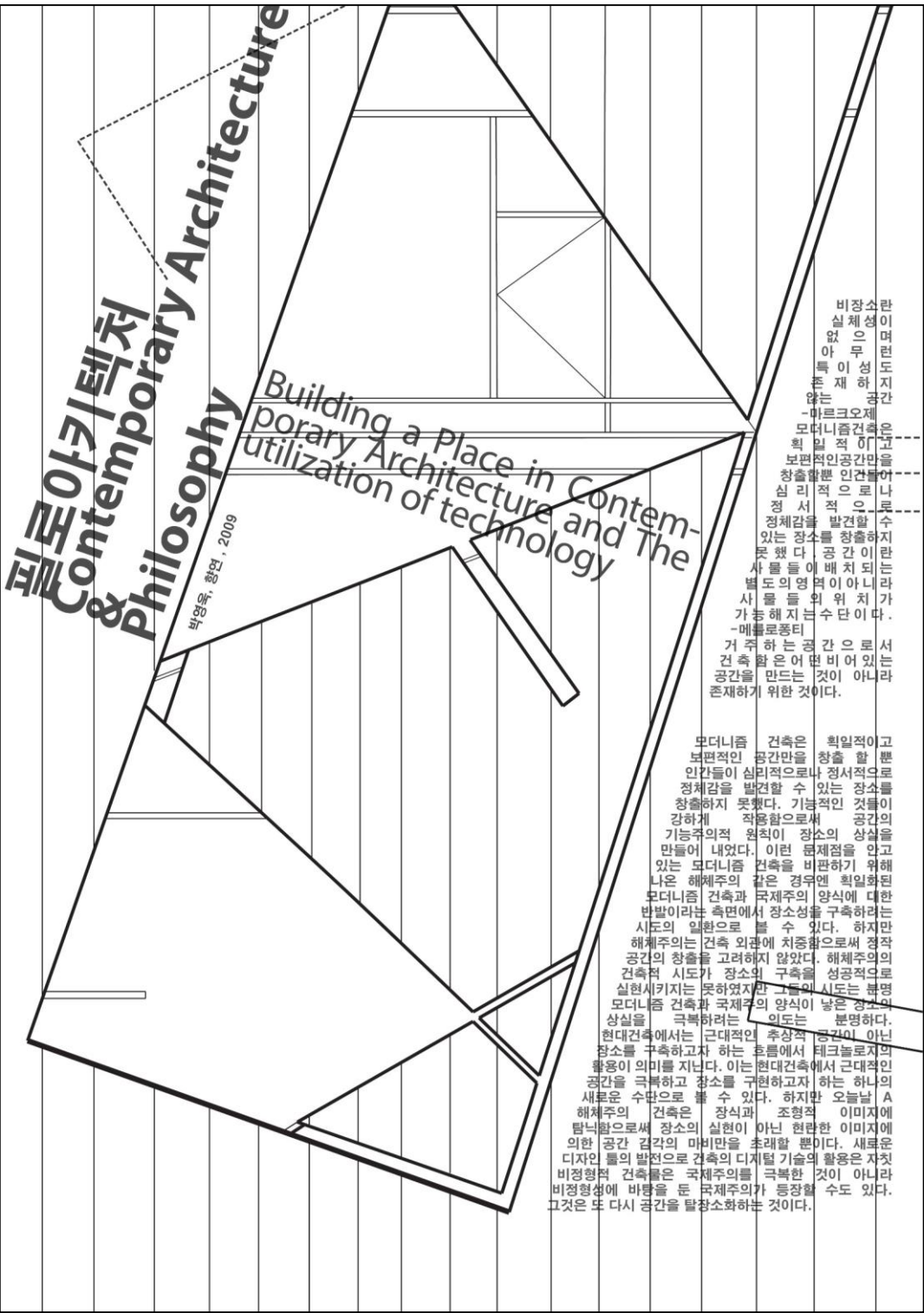
제 1의 공간 - 지각공간 (공간실험)
신체적인 공간으로써 인간이 체험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예기한다.
예로 들어 천장의 높고 낮음,
경사의 기울기와 정도,
제 2의 공간 - 관념의 공간 (공간의 개념)
깊이 속의 넓음과 좁음 등이 존재한다.
추상적인 공간으로써 기하학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성격을 많이 보여준다.
기하학의 성격을 공간적으로 해석하여
공간 속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제 3의 공간 - 삶의 공간 (재현하는 공간)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공간으로써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요구되어지는
치수와 같은 여러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형태들을 말하고 있다.

건축가는
'Artist' - 'Engineer' 이다

형태의 시기에 나타난 건축의 본질
'공간'

건축의 공간

기하 - 도형 및 공간의 성질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
모형로지 - 추상을 또는 인간의 정신들에 대한 구조,
형태 - 어떠한 구조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체가
일정하게 갖추어지고 있는 모양
기능 - 하는 구상이나 작용을 함. 또는 그런 것
기하와 모형로지를 통하여 보면 건축의 양면성이 드러난다.
건축가는 기하를 통해 사물의 상징이나 자신의 생각을 그려내지만
모형로지에서 완전화 되어질 수 없다.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되는 것이다.



ARCHITECTURALLY

SPEAKING

Eugene Raskin
1954



Style



Unity



Scale



Rhythm



Originality



Proportion



Sequence



Composition



Fuctionalism



T. J. PARK

개성 있는 스타일을 가진 위대한 예술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홀로 영감 받아 창작하는 외로운 천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상함, 색다름, 확신도 혼자서는 독창성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를 합쳐야만 만들 수 있다



ARCHITECTURE

pixelhouse



Marina Bay Sands



Petronas Towers



Tokyo Tower



Hagia Sophia



London Bridge



Alhambra



Basilica



Cathedral Of No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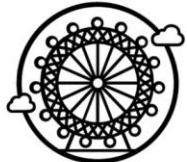
Brandenburg Gate



Golden Gate Bridge



Christ The Redeemer



London Eye



Crystal Masjid



The Great Wall



Burj Al Arab



Sagrada Familia



Colosseum



Burj Khalifa



Sungnyemun



Taipei 101

필로 아키텍처
박영욱, 황연, 2009

디지털 건축 디자인과 틀릭즈의 다이어그램
Contemporary Architecture & Philosophy

CONTENTS

- 제 1 장 근대건축과 시각중심주의의 한계
- 제 2 장 메를로퐁티의 공간론과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
- 제 3 장 추미와 누벨의 건축, 그리고 테리다의 미학
- 제 4 장 현대건축에서 '장소'의 구축과 테크놀로지의 활용
- 제 5 장 디지털 건축과 틀릭즈

KEYWORD

다이어그램이 현실의 다양성을 제거하고 상상력에 의한 세계의 창조적 발견을 제약하는 개념적 사고에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PRESSIVE SENTENCE 1

디지털 디자인의 발전을 통해 건축가가 단순한 프로그램을 도면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가 아닌 상상력에 기초하여 수많은 다이어그램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을 뜻한다.

IMPRESSIVE SENTENC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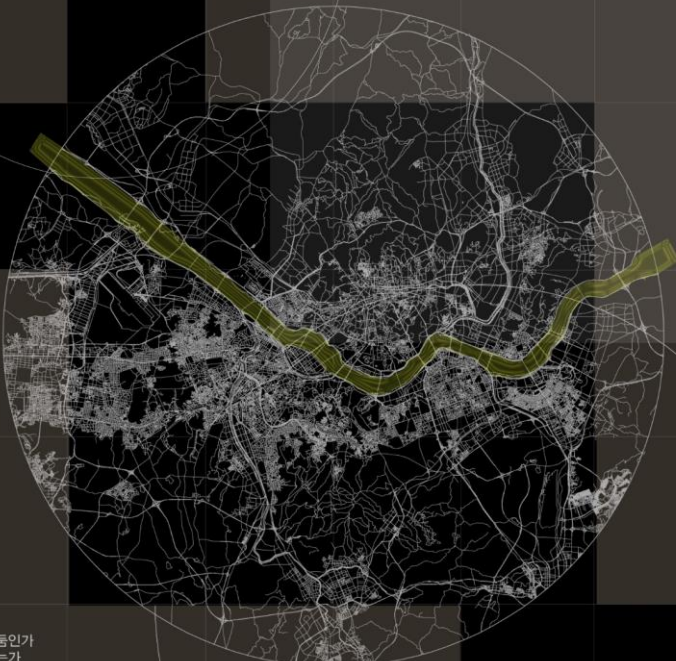
"건축가는 단순히 3D 틀을 다루는 엔지니어도 아니며 사공의 전문가도 아니다. 건축가는 자신의 총체적 지식과 예술적 직관, 그리고 인문학적 통찰 등을 동원한 다이어그램을 제시하고 이러한 다이어그램에 따라서 설계와 사공의 모든 과정을 통괄하는 디렉터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말하자면 다이어그램은 건축공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지식이 총 집결된 상상력의 산물로서 건축에 철학이나 인문학, 사회학, 정치학과 같은 수많은 외부지식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REVIEW

이 책은 전문적인 건축 지식보다 전반적으로 근대건축부터 시작해서 현대건축에 나타난 공간론이나 건축가들의 이론들을 비판적인 관점으로 쓴 내용을 담았다. 또한 최근에 등장한 디지털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고 디지털 건축과 관련된 다이어그램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며 이론적 한계를 밝히는 내용이다. 나는 5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디지털 건축이 디지털 매체라는 특성을 통해서 전통적인 건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뿐만 아니라 주로 디지털 건축에서 강조되는 "다이어그램"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여 틀릭즈의 다이어그램 개념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그 이론적 한계를 배울 수 있었다. 아쉽게도 저자가 비판하려던 내용과 강조하려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였다.

도시 건축의 새로운 상상력
김성홍, 현암사, 2009

도시 어떻게 바뀌었는가



CONTENTS

- 제 1 장 도시는 건축물들의 모듬인가
- 제 2 장 땅들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 제 3 장 도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 제 4 장 서울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 제 5 장 상상력은 어디서 비롯하는가

KEYWORD

아시아의 건축과 도시를 향한 유럽과 미국의 진출은 두 방향으로 나타 날 것이다.
첫 번째, 도시 계획의 주류였던 실증 주의적 방법론과 두 번째 모더니즘 이후
건축의 주류였던 예술적 건축가들의 영역 확대이다.

IMPRESSIVE SENTENCE 1

서구 도시의 성장과 대안을 위한 콜라주와 그리드는 동아시아 도시에서는 일종의
참고서일 뿐 교과서는 아니다. 콜라주를 종이로 찢어 더덕더덕 붙이는 설계 방법론
으로 생각하거나 그리드 위에 그린 콜라주의 초현실적 그림을 설계 방법론으로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된다.

IMPRESSIVE SENTENCE 2

"도시는 건축물이 덮고 서 있는 배경이나 방해물이 아니라 건축 신체의 일부가 된다."

REVIEW

이 책은 한국의 도시, 서울을 배경으로 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준다. 또한 한국 건축물과 도시의
풍경을 세계의 보편적인 흐름과 비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내가 살펴 본 3장에서는 세계의 도시를
예로 들어 도시의 발달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다. 개인적으로 건축과 도시의 중립적인
관점으로 잘 쓰여져 있었으며 이해하기 쉬웠고 서울 발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혀있어서 서울에 대한
새로운 역사나 성장과정에 대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RED IS WHAT
AN APPLE IS
YUMMY IS WHAT
A BANANA IS.

필로아키텍처-박영욱
1402033 석주희



바나나는 노란색?
바나나는 노랗다는 사실은 객관적 사실.
바나나가 맛있다는 것은 주관적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파란색의 느낌은 차갑다 혹은 상큼하다. 이는 다소 주관적인 색의 느낌이다.
하지만 우리가 파란색에서 느끼는 느낌 자체는 단순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사람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공통된 체험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바나나가 '맛있다' 라는 것 또한 공통된
체험에서 나온 사실로, 그 자체가 객관적인 지평을 이룬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세계가
객관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주관적인 지평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평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체험 세계를 이루는 바탕인 현상적 장은 주관적인 장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객관적인 토대를 지닌다.



그런데 만약 바나나가 노란색이 아니라면?
메를로퐁티가 말한 현상적 장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의 바나나는 바나나일 수
있을까? 눈앞에 분홍색 바나나가 놓여져있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우리는
'분홍색 바나나' 를 두고 '맛있는 바나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처음 바나나를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바나나가 맞는지 의심을 품게되고, 혼란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스트래튼이나 베르트하이머의 실험에 공간이 아닌 색을
적용 시켜 생각 해 본다면 아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홍 바나나를 받아들이게
될것이다. 바나나의 노란색은 그저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놓은 무언가에 의해
규정된 색일 뿐 사실 노란색 자체는 의미가없다. 더 간단한 예로 노란색 바나
나에 하얀 조명 외의 색이 포함된 조명을 비추었을 때 바나나는 노란색이 아닌
다른 색을 띄게 되지만 조명으로 인해 바나나가 바나나가 아닌게 되진 않는다.
색은 그렇다. 책에서는 공간의 개념을 방향, 거리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공간의 개념은 더 넓게 공간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든다. 색, 밝기, 원근감 등 시각으로 느끼는 것들 뿐만 아니라 후각 청각
등 다른 인간의감각으로도 충분히 공간을 느낄 수 있다. 이것들을 모두 아우러
표현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체험적 공간 즉 객관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
지 않을까

도서명 : 건축의 재구성
저자 : Stephen Kieran
출판사 : 시공문화사
출판 년도 : 2006년 3월



과거



마스터 빌더



현재



건축가



제품기술자



시공자



재료공학자



기타



건축을 정의하기 위해
한 단어만 사용해야 한다면
건축은 '감동'이다.
감동이 없다면 건축도 없다.
오직 건물만 있을 뿐이다.



개념이 명료한 것이
특징성의 토대가 된다.

(1909 ~ 2004)
유신 라스킨 자음. 로버트 오스본 그림. 김윤범 음감. 발매: 픽셀하우스. 출간: 1954년.

건축으로

ARCHITECTURALLY

개성있는 스타일을 가진
위대한 예술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생각보다 오래된 책임에도
저자가 생각하는 11가지 키워드를
바라보는 건축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에 충분하였다. '건축'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적인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있으며 생각한다.

Architect
style
Unity
Scale
Rhythm
Originality
Proportion
Sequence
Composition
Functionalism
Character
& Honesty

건축은 감동이고
스케일로 감동을 일으키는
도구이다.

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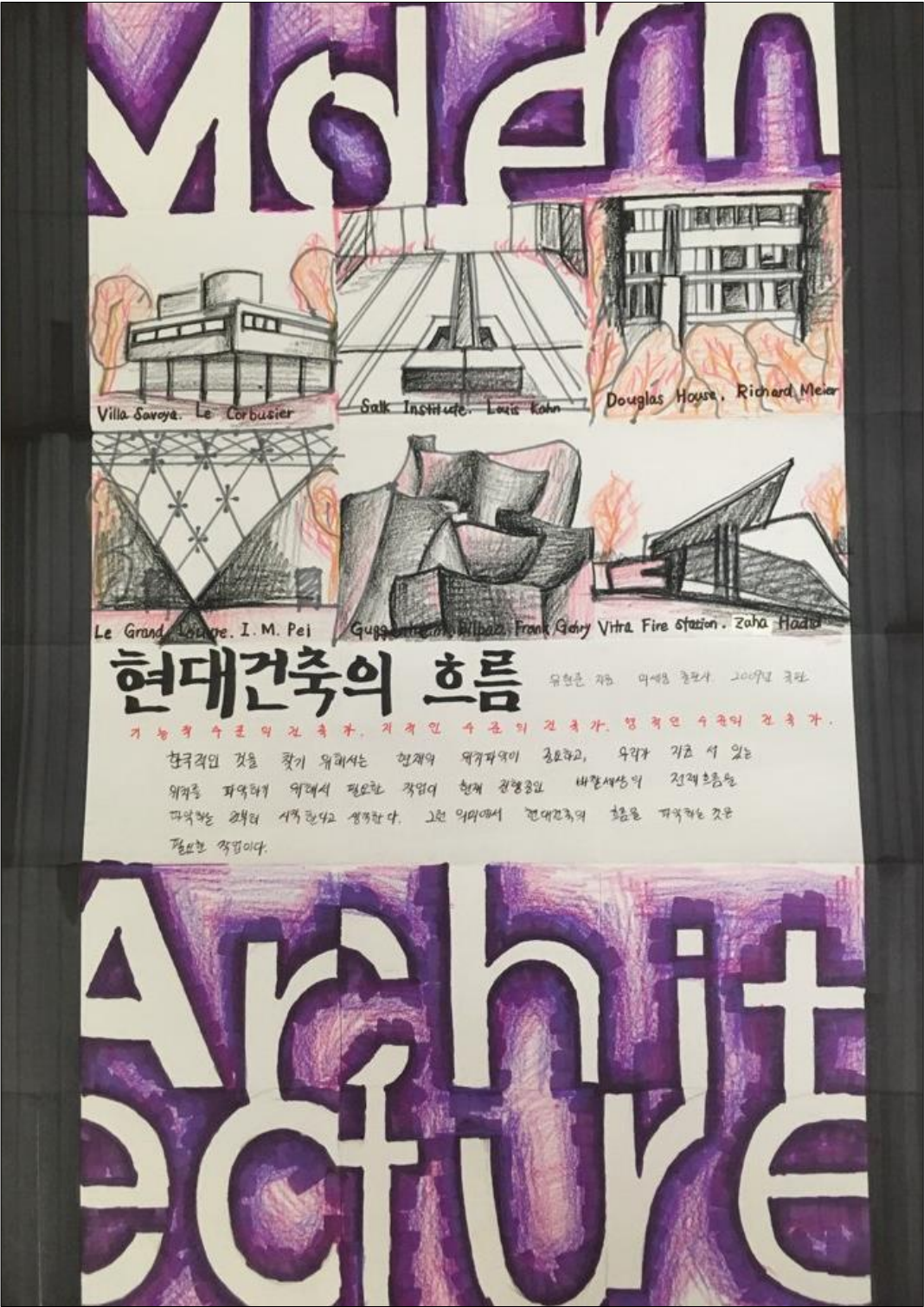
SPEAKING

홀로 영감받아
창작하는 외로운 천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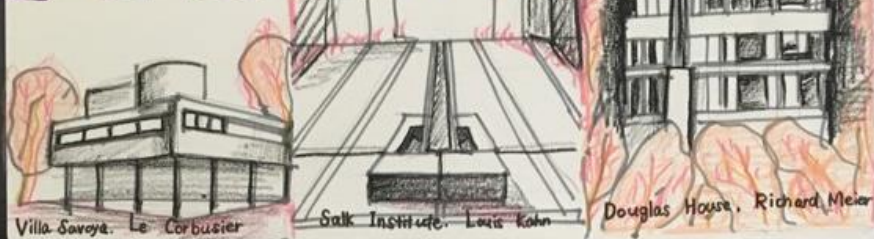


유나경

2017. 05. 08. 유나경



Modern



현대건축의 흐름

유현준 지음, 마에출판사, 2009년 국판

기능적 수관의 건축가, 지적인 수관의 건축가, 영적 수관의 건축가.

현대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의 맥락과 맥락이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현재 환경과의 비관계성의 정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건축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다.

Architecture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마음을 지배하는 공간의 비밀
Place of the Heart

가상현실

/가상현실의 현상학/

아바타의 신체언어가 현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동일
한 규칙을 따른다

/유비콤브/

기계가 세계가 된다

But/ 건축설계 ≠ 생리적 특성
일 수 있다

/실재감(Presence)/

현실세계와 접촉이 끊어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구현된
것처럼 느끼는 것

/인지구조의 핵심/

우리는 평균 1분에 한번씩
정신이 다른 시간이나
장소를 배회한다

도시의 데이터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구조 이야기

저 자 : 미셀 프로보스트
옮긴이 : 김수진
출판사 : 그린북

건축공학 1502050 이두호

평행 조건



미달평형

정적평형

과잉평형

보의 변형



정사각형의 변형을 막는 방법으로는 대각선 설치하기, 끼워넣기, 막 채워넣기 방법이 있다

아치



아치가 자유롭게 팽창할수 있도록 아치에 힌지를 만들게되면 온도에 상승에 따른 내부 응력 발생으로 인한 파괴를 막을 수 있다.

절판 구조



판을 접거나 구불거리게 만들면 견고해지고 저항이 증가한다. 이러한 구조를 절판 구조라고 한다.

기둥



기둥의 수를 줄이려면 나무 형태의 기둥을 이용하면된다. 최종적으로 기둥의 수 줄었지만 받침대의 수는 같기 때문에 지붕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구조물의 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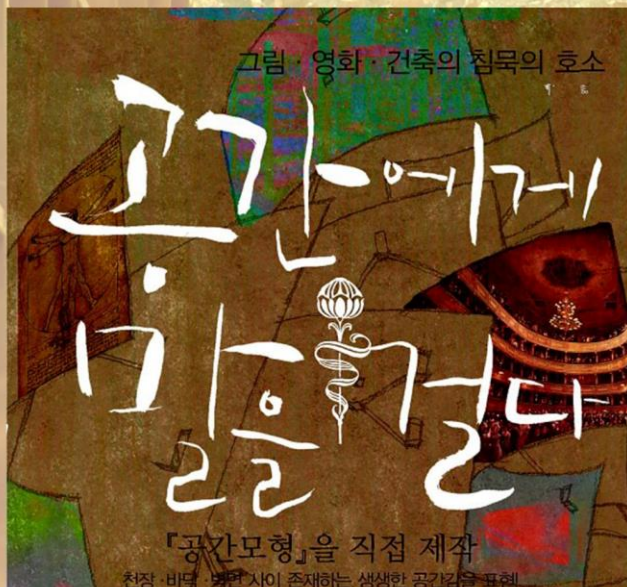
무게가 가벼운 철로 만든 에펠탑은 흔들림을 막고 안정화 시키기 위해 받침다리를 넓게 한다.



무게가 무거운 돌로 지은 탑은 철로 지은 탑보다 하부토대를 더 작고 가볍게 할 수 있다.

공간에게 말을 걸다.

조재현 지음
출판사
멘 토프 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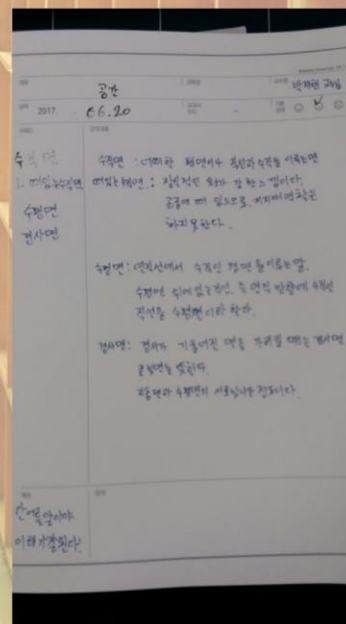
책 평가 :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이며 독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이
자세히 되어있다.
시적인 표현과 공간의
자유성을 강조시키며
아름 다음을 표하기 좋은
책이다.



수직면 : 어떠한 평면이나 직선과 수직을 이루는 면
떠 있는 수직면 : 장식적인 색이 강한 느낌을 준다.

수평면 : 연직선에서 수직인 평면을 이루는 말 수평면
위에 있는 직선 즉 연직 방향에 수직인
직선을 수평선이라 한다.

경사면 : 경사가 기울어진 면을 가리킬때는 경사면
곧 빗면을 뜻한다.
지중면과 수평면의 서로 빗나간 정도이다.





건축의 재구성



"왜 건축분야만 변화와 진보의 물결에 합류하지는가?"

"생산의 관점에서 혁명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건축가는 자신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 이야기

미셀프로보스트 —그린북— 2013

책의 성격

- 우리들의 주변에는 수 많은 건물들이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보통 이러한 건축물들이 어떻게 서있을 수 있고, 하중과 힘에 견딜 수 있는지 궁금해 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건축물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건축물이 서있을 수 있는 원리, 힘의 원리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힘의 평형

- 구조물은 수직, 수평, 회전의 힘의 평형으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 즉, 작용 반작용원리로 구조물이 움직이지 않는 정지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작용과 반작용 :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서로 평형을 이루는 두 힘,

보의 원리

- 보는 높이가 높을수록 강한 내력을 갖는다. 그 원리는 보가 내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작용과 반작용 사이의 '간격' 때문에 생긴 외부 우력이 내부우력과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내부 우력은 보의 아래쪽에 나타나는 인장응력과 보의 위쪽에 나타나는 압축응력에 의해 형성 되는데, 이 내부 우력의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는 이 응력을 간의 거리에 대응한다. 보의 높이보다 약간 짧은 값이다. 따라서 보의 높이가 높을수록 이 응력들의 크기는 약해진다. [p.50]
- 보에 작용하는 외력은 보의 내부에서 응력을 유발하고 이 응력은 보를 이루는 재료의 내력에 의해 흡수된다. 여기서 응력은 인장력 또는 압축력을 말한다. 따라서 보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모두 강해야 한다. 따라서 콘크리트 보에는 철근을 이용한 인장력에 대한 보강이 필수적이 되는 셈이다. [p.51]



건축물의 작용하는 힘의 종류에는 휨, 압축력, 인장력, 전단력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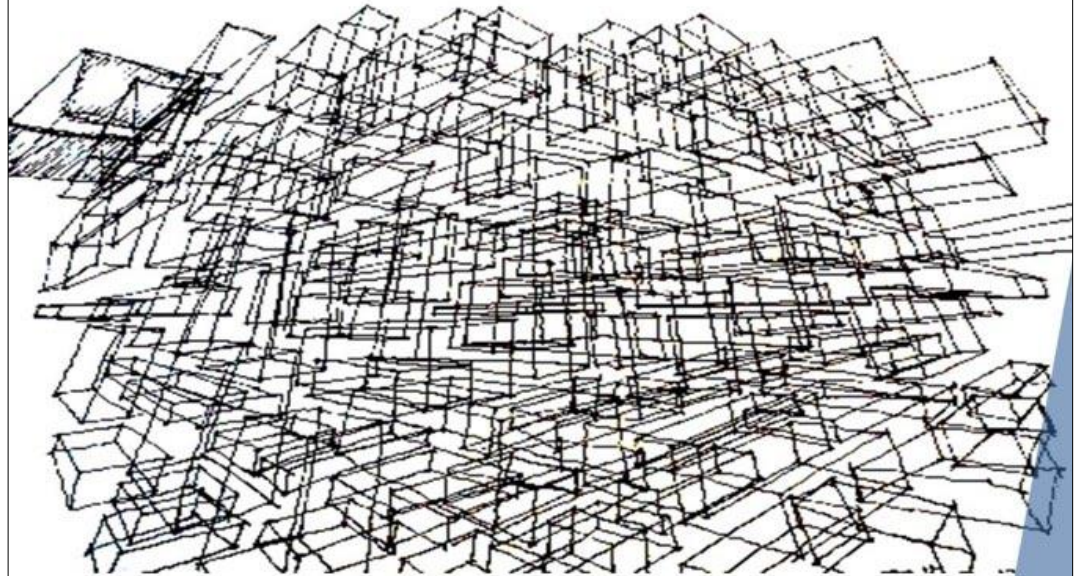


지점의 종류에는 이동지점, 회전지점, 고정지점이 있는데 회전지점이란 회전은 가능하지만 이동이 불가능한 지점을 말하고, 이동지점이란 이동과 회전이 가능하고 수직이동이 불가능한 지점을 말하고 고정지점이란, 수직, 수평이동과 회전이 전부 불가능한 지점을 말한다. [p.58]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란 콘크리트에 강현재를 설치하여 인장력을 가함으로 콘크리트에 압축응력을 발생시켜 콘크리트의 작용하는 외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견딜수 있게하는 콘크리트이다. [p.172]

건축,
권력
과
욕망
을
말하다.



역사를 담은 건축,
인간을 품은 공간

서윤영 지음_공리
1402056 이현주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건축
공강과 건축이 발신하는 다양한 메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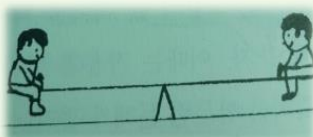
이현주

과학 원리로 재밋게 풀어 본
건축물의 구조 이야기

작용과 반작용이란?
서로 평행을 이루는 두 힘이다. 이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이며, 엄격하게 일직선으로 정렬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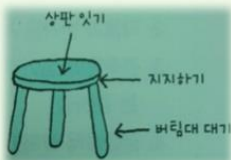
우력이란?
우력은 '짜함'이라고도 하는데
크기가 같고 서로 방향이 반대
인 평행한 한 쌍의 힘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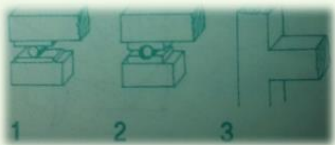
힘이란?
재료에 압축력이 가해져서
이것이 수평 방향으로 힘이
빠지는 것을 힘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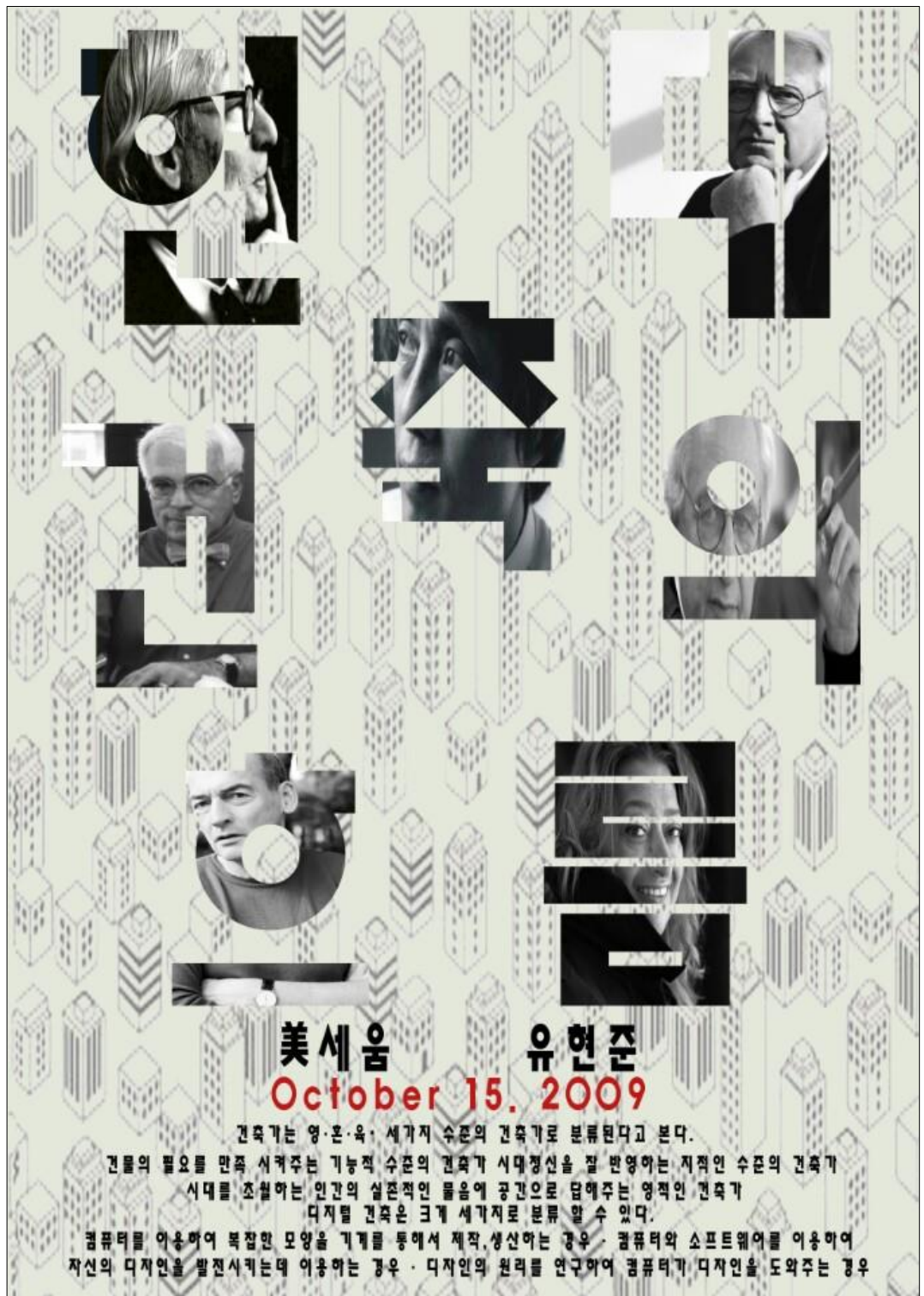


건축물의 결합이란?
모든 건축물은 '상판 잇기, 자자하
기, 버팀대 대기'라고 하는 세 가지
구조적 기능을 개별적으로 또는 전
체적으로 지닌 요소들을 결합한 것
이다.



세 가지 유형의 받침점
1.롤러 지점에서는 회전과 수평이
동은 가능하지만, 수직 이동은 할
수 없다.
2.링크 지점에서는 회전만 가능하다.
3.고정 지점에서는 어떠한 이동도
불가능하다.(돌출부를 만들 때 반드
시 필요함)
이동이 가능한 정도를 두고 '자유의
정도'라고 한다.





Personal Space



권력과 욕망을 말하다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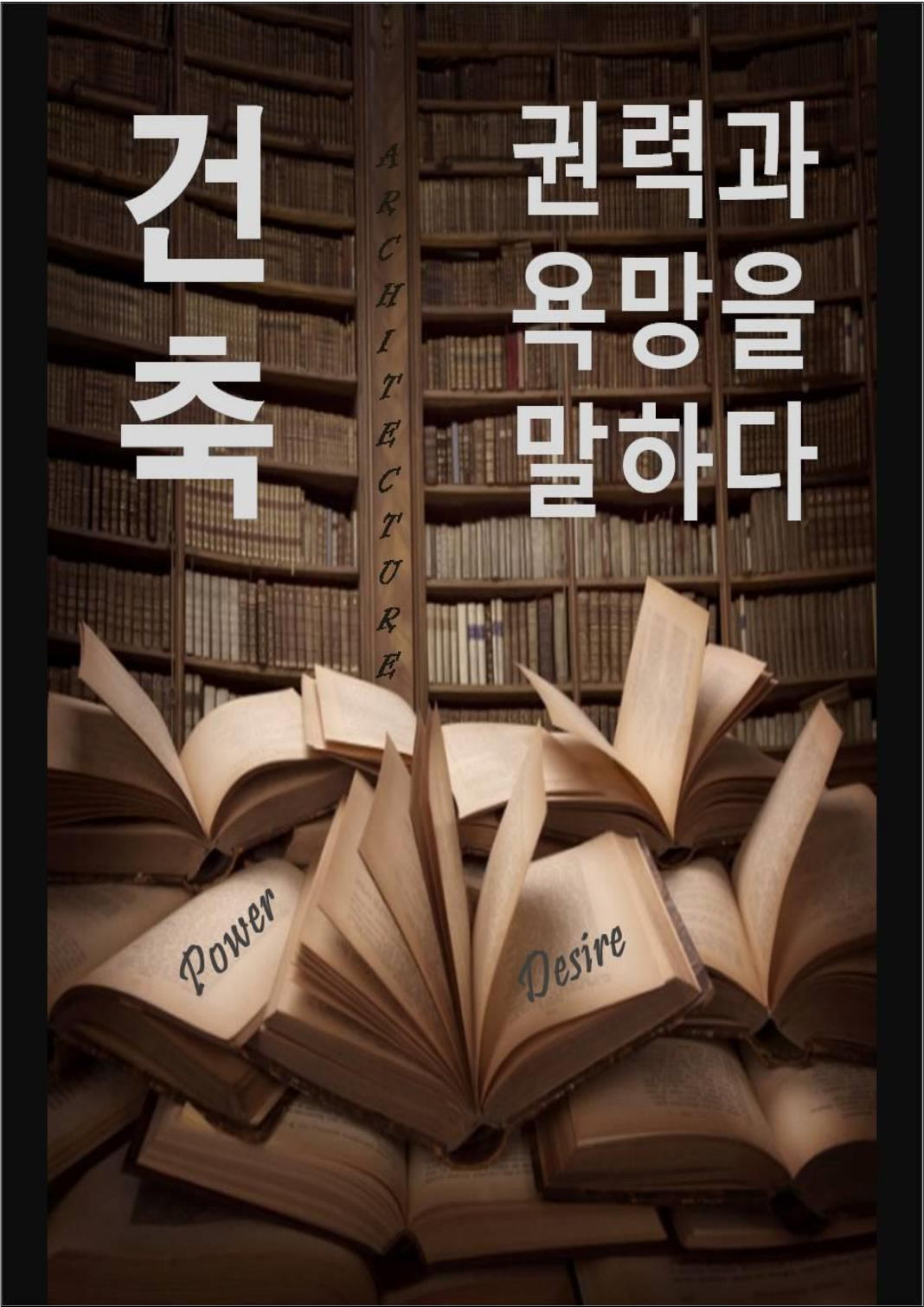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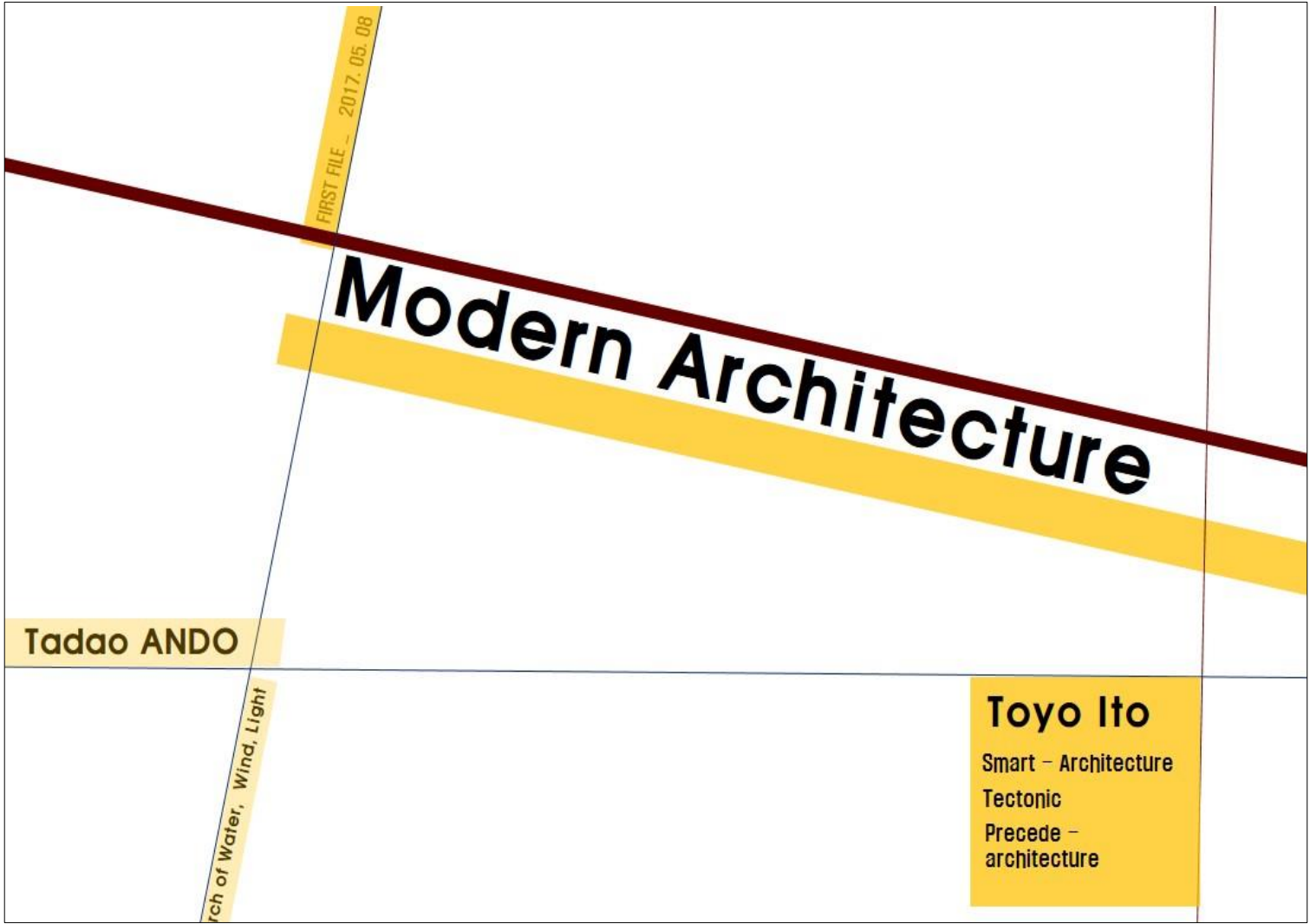
지진은 왜 일어나는가?

저자: 매티스 레비, 마리오 살바도리

지구에서 지진은 왜 일어나는가 같은 지구에 대한 이야기부터 지진학의 탄생, 지진 그리고 면진 및 대체방안까지 온전히 지진에 집중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자세한 그림과 푼 그림과 디테일한 설명까지 그동안의 지진에 대해 알지 못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도움이 있는 책을 추천해본다.







공

간

이

사

람

을

움

직

인

다

마을을 지배하는 공간의 비밀

나는 어떤 공간에서 활동하고, 활동적이며, 인식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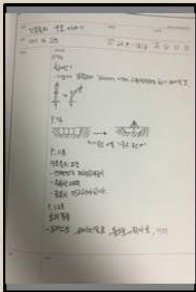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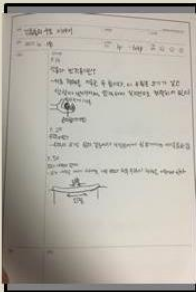
자연 대 가상현실, 미학의 집, 유희와 만물의 심령설, 도시의 심리지리학, 경로의 심리학, 뇌와 마음을 위한 공간,

폴리 윌리드 지론 | 문보강 옮김 | 정지승 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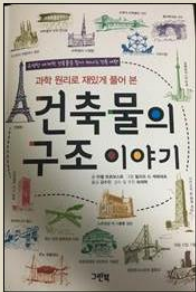
북원대학교 건축학과 Book study 모임

p.20 우력이란??
-우력의 크기는 힘의 강도에다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를 곱한값이다.

Voyage au apys des Structures.



도서명 :과학원리로 재밌게 풀어 본
건축물의 구조 이야기
저자 :미셀 프로보스트
그림 :필라브 드 케메테르
역은이 :김수진
출판사 :그린북
출판년도 :2013. 04. 17



p.19 작용과 반작용 이란??
-서로 평형을 이루는 두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동시에 엄격하게 일직선으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단
순히 완벽한 디자인과 재료를 말하는게
아니다. 설계를 완벽히 해도 구조적인 요
소가 빠져있지 않으면 그건물은 흔히 부
실시공으로 건설한 건물은 여러 하중에
견디지 못하고 망가지는 건물이 된다. 하
지만 공학적으로 그 힘에 대해서 부터 건

정렬되어 있는걸 말한다.

-재료에 압축력이

물의 재료와 설계 그리고 만든 역학적 개
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
들 즉 건축관련과나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 아니면 그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도 힘
들고 설명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이 책에
서는 그런 개념을 고등학교 아니 중학생
도 이해 할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쉽게 설
명 함으로써 처음 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접하는 사람들이 보면 무언가 얻어가는
자료와 여러 형태에 대해 알수 있는 게기
가 되는 책일거 같다.

p.74 힘 이란??
강해져서 이것이 수평방향으로 힘이 빠지는것을 말한다.

p.118 구조물의 조건?
- 전체적으로 평형상태 유지 / -충분한 내력이 필요하다. /

-충분히 견고해야 한다.

O4

PARTICIPATORY REVIEW

김 하 영

이번 활동을 통해서 평소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들을 통해 깨달은 점도 많아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 혜 진

한학기에 동안 책을 읽을 때 재미있는 책도 있었지만 어려웠던 책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책에서는 흥미를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어려운 책에서는 어려운 책 나름대로의 평소 알지 못했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 진 원

이번 북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각자 책을 읽고 조원들 서로의 의견을 들어 봄으로써 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강 보 훈

평소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윤 환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았고, 그것을 통해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박 태 준

B.O.O.K 활동을 하면서 평소 건축에 관련된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나눠 서로 생각을 공유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어 정말 유익했습니다. 또한 꾸준한 독서를 하겠다는 생각이 잡혔고 서적에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유 나 경

1학기동안 처음으로 참여해본 독서모임은 정말 유익했고, 바쁜 학기중에도 건축에 대한 개념과 다양한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포스터를 만들기위해 여러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 수 빈

저에게 이번 b.o.o.k 활동은 "건축"이라는 분야에 대해 풍부한 정신적 경험이 되어주었습니다. 함께 활동하는 선,후배와의 교류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네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 예 린

학기중에 시간을 내서 건축에 대한 책을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고 견문이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경험 여러분께서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 윤 성

이번 독서 활동을 통해 건축에 대해 쉽게 접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건축을 이해하고 깊이 있게 공부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 성장하는 제 자신과 함께하는 선후배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유 현 아

다양한 분야에서 건축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좀더 일찍 이런 활동을 했다면 건축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석 주 희

건축서적은 인물위주의 책들로 많이 접해왔었는데 심리, 철학 등 다양한 분야로 건축을 접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김 수 인

건축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책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같이 같은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여러 관점에서 책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현 종 욱

지금의 건축은 어떠한 지 현대건축의 사회적인 부분을 보고 더불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건축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내용들이 저 스스로 세웠던 건축에 대한 벽에 조금씩 금이 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건축을 돋보기로 보듯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임에 제대로 임하지 못해 아쉽고, 앞으로 계속 되어도 참 좋을 것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김 준 영

전공과목으로 배운 건축이 후라이드 치킨이라면 이 리딩 모임은 다양하고 맛있는 소스였습니다.

문 상 원

다같이 책을 읽고 서로 생각하는 바를 얘기하면서 평소 생각치 못한 부분까지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고 은 이

항상 수업을 들으면서 느껴왔던 2%의 부족함을 이번 독서활동을 통해 채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활동이 아닌 선후배가 함께 교류하는 모임을 가지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우리 학부내에 이러한 활동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영 기

북 활동을 하면서 벌써 3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한 학기 기준으로는 많은 양의 책은 아니었으나 바쁜 생활 속에 책 읽는 여유를 찾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포스터 역시 읽은 책들을 정리하며 키워드를 찾을 때 책을 다시 한 번 보는 것과 같아서 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 규 민

학부생활을 하는 동안 책의 중요성을 많이 들어서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긴 했지만 읽지 못하는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하여 여러 책을 읽어보고 그에 관련된 내용을 토의하면서 그 동안 부족했던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부생들이 이 활동을 경험하여 책을 통하여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 행

이번 독서 활동을 하며 책을 읽다 보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좀 더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 더 많은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함 소 라

이번 학기 독서활동을 하면서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 현 석

평소 좋아하던 분야에서 벗어난 책들을 읽고 새로운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다양한 책들을 읽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진 우

학기 중에 책 읽을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여러 종류의 책을 읽을 기회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이 현 주

한 학기동안 책을 평소에 잘 접하지 않았는데 이번 토론 활동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책을 다같이 얘기하며 정리하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

허 강 현

평소 책을 읽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있었는데 이번기회에 한단계 실천하게 돼서 뿌듯하고 다음 학기에도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더 읽어 보고 싶습니다.

최 동 균

독서활동을 통해 건축이라는 학문을 단순한 전공분야로써 생각하기보다는 여러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철

독서모임을 계기로 독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고 꾸준함이 더해진다면 그 힘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구 본 휘

솔직히 책 읽는 것을 싫어했는데 이번 독서 활동을 통해 책과 좀 친해진 것 같고 책 읽는 습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건축 관련한 책을 읽어 전공에 대해 좀 더 지식을 얻고 아는 것들도 종종 등장 하다 보니 책 읽기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환

한 학기동안 신선한 생각과 좋은 모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책들로 여러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 원 철

좋은 책을 소개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성 재

학기 중에 책을 읽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런 활동을 통해 책도 읽고 여러 지식도 쌓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습니다.

원종민

평소에 독서를 자주 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독서모임을 통해서 책을 읽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두호

이전에는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유익했습니다.

홍형철

평소에는 책을 많이 읽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렇게나마 읽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모

좋은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 선후배가 함께 서로 토론을 하면서 여러가지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O5 RECOMMENDED BOOKS

05 RECOMMENDED BOOKS

	도서명	저자/역자	출판사
1	패턴 랭귀지 : 도시 건축 시공	크리스토버 알렉산더 외	인사이트
2	공간디자인 16강	권영걸	국제
3	건축, 교양이 되다 : 모두가 한 번쯤 궁금해했던 건축 이야기	이석용	책방
4	건축으로 말하기	유진 라스킨 / 김윤범	픽셀하우스
5	나는 건축가다 20인의 건축 거장 삶과 건축을 말하다	한노 라우테르베르크	현암사
6	기호와 시스템으로 읽는 건축 : 매너리즘시대를 위하여	로버트 벤투리 / 유혜경	애플트리테일즈
7	우리 건축 서양 건축 함께 읽기 : 임석재 교수의 대중을 위한 건축 강의	임석재	컬처그라퍼
8	7개의 키워드로 읽는 사회와 건축공간	최윤경	시공문화사
9	자유로운 건축 개념의 구조로서 건축	강정재	시공문화사
10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이재인	시공사
11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제인 제이콥스 / 유강은	그린비
12	수학은 어떻게 예술이 되었는가 : 기하학으로 본 미술과 건축	이한진	컬처룩
13	20세기 건축의 모험	이건섭	수류산방중심
14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 마음을 지배하는 공간의 비밀	콜린 엘러드 / 문희경	더퀘스트
15	바이 디자인(by Design) : 우리 시대 디자인과 건축 이야기	데얀 수직 / 이재경	홍시
16	디스턴스 : 원하는 것을 얻게 만드는 거리의 비밀	이동우	엘도라도
17	영원의 건축	크리스토버 알렉산더	안그라픽스
18	사람 건축 도시	정기용	현실문화
19	빌딩블로그 공상과 현실 사이의 건축, 도시, 경관	제프 마노 / 김아연 외	나무도시
20	페터 Zum토르 건축을 생각하다	페터 Zum토르 / 장택수	나무생각
21	페터 Zum토르 분위기 : 건축적 환경 주변의 사물	페터 Zum토르 / 장택수	나무생각
22	우리가 집을 짓는 10가지 이유	로완 무어 / 이재영	계단
23	공간에게 말을 걸다 : 그림 영화 건축의 침묵의 호소	조재현	멘토프레스
24	나는 한옥에서 풍경놀이를 즐긴다 : 창으로 만들어내는 한옥의 미학	임석재	한길사
25	약한건축	쿠마 켄고 / 임태희	디자인하우스
26	건축을 향하여	르 코르뷔지에 / 이관석	동녘
27	건축은 왜 중요한가	폴 골드버거 / 윤길순	미메시스
28	건축수업 :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축가 헤르만헤르츠 버거의	헤르만 헤르츠버거	효형
29	정의와 비용 그리고 도시와 건축 : 근대 건축으로 한국사회를 읽다	함인선	마티
30	아돌프 로스의 건축예술	아돌프 로스 / 오공훈	안그라픽스

	도서명	저자/역자	출판사
31	건축의 이해	윌리엄 W. 카우텔 외	기문당
32	철학으로 읽는 옛집 :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왜 건축에 중독되었는가	함성호	열림원
33	행복의 건축	알랭 드 보통 / 정영목	청미래
34	건축, 인문의 집을 짓다	양용기	한국문화사
35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수록 좋다 김수근 공간인생론	편집부	김수근문화재단
36	건축 권력과 욕망을 말하다 : 역사를 담은 건축, 인간을 품은 공간	서윤영	궁리
37	건축의 외부공간	아시하라 요시노부	기문당
38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LE CORBUSIER	태림문화사
39	건축 구성하기	프랑코 푸리니	공간사
40	도시를 건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건축 소통과 행복을 꿈꾸다	이훈길	안그라픽스
41	다시 집을 순례하다 : 20세기 건축의 거장들이 지은 달고 따뜻한 삶의 체온이 담긴	나카무라 요시후미	사이
42	집을 순례하다	나카무라 요시후미	사이
43	건축이 태어나는 순간	소우 후지모토 / 정영희	디자인하우스
44	구조의 구조	함인선	발언
45	설계자 및 시공자를 위한 건축설계 시공핸드북	ANDREA DEPLAZES (ED.)	spacetime
46	건축디자인 통합론 : 건축시스템 통합으로 건축디자인을 완성하다	Richard D. Rush, AIA	대가
47	재료디자인 : 건축디자인의 재료 혁신	토머스 슈뢰퍼 / 한영호	기문당
48	건축 디자인 발상법 : 21가지 IDEA TOOL	히라오 카즈히로 / 이상호, 김민정	기문당
49	YES IS MORE(예스 이즈 모어) : 건축 진화에 관한 코믹북	비아케 잉겔스	아키라이프
50	건축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비톨트 립친스키 / 서경욱	미메시스
51	건축의 형태공간 규범 [4판]	FRANCIS D.K. CHING	국제
52	건축설계 프로그래밍	EDITH CHERRY / 김수인	기문당
53	CONCEPT SOURCE BOOK:건축개념과 형태어휘	EDWARD T. WHITE	시공문화사
54	도시설계 : 모던 도시, 전통 도시, 녹색 도시, 시스템 도시	조너선 바넷 / 한광야 외	한울아카데미
55	도시인간학 : 도시 공간의 통합 기호학적 연구	김성도	안그라픽스
56	도시와 인간: 중세부터 현대까지 서양도시문화사 : 중세부터 현대까지 서양도시문	마크 기로워드 / 민유기	책과함께
57	도시해석	김인 외	푸른길
58	도시설계 : 장소 만들기의 여섯 차원	MATTHEW CARMONA 외	대가
59	인간을 위한 도시 만들기 : 도시 공간과 인간적인 삶 연구	얀 겔 , 비르깃 스바	비즈앤비즈
60	도시 건축의 새로운 상상력	김성홍	현암사

	도서명	저자/역자	출판사
61	도시를 생각하다 : 행복한 미래 도시를 위한 비판과 상상	장디페이 / 양성희	안그라픽스
62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	얀 겔 / 김진우 외	푸른솔
63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 도시를 보는 열다섯 가지 인문적 시선	유현준	을유문화사
64	내일의 전원도시	에벤에저 하워드 / 조재성, 김한울	한울아카데미
65	도시를 보다 : 도시를 이해하는 100가지 코드	앤 미콜라이트 외	안그라픽스
66	건축을 시로 변화시킨 연금술사들 : 건축 거장 15인 그들의 생각과 스케치를 훑어다	황철호	동녘
67	칸: 침묵과 빛의 건축가 루이스 칸	데이비드 B. 브라운리	미메시스
68	건축가들의 20대	안도 다다오 연구실	놀와
69	근대적 시 공간의 탄생	이진경	그린비
70	포스트모던을 이끈 열 개의 규범적 건축: 1950-2000	피터 아이젠만 / 서경옥	서울하우스
71	공간 시간 건축(Space Time and Architecture) : The Growth of a New Tradition	S. GIEDION / 김경준	시공문화사
72	흐름과 더함의 공간 : 안영배의 한국건축읽기	안영배	다른세상
73	한국 현대건축 평전	박길룡	공간서가
74	보이는 건축 보이지 않는 생각 건축 디자인이론의 비판적 역사	마크 켈런터 / 최아사	한길사
75	현대성의 위기와 건축의 파노라마	탈 카미너 / 조순익	spacetime
76	건축 환경행동의 이해 [2판]	서봉교 외	기문당
77	건축 멜랑콜리아 한국 근현대 건축 공간 탐사기	이세영	반비
78	현대건축의 흐름	유현준	미세움
79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4: 생기론	장용순	미매시스
80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3: 용해와 내재성	장용순	미매시스
81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1: 위상학	장용순	미매시스
82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2: 은유와 생성	장용순	미매시스
83	필로아키텍처 : 현대건축과 공간 그리고 철학적 담론	박영옥	향연
84	건축과 인간	EUGENE RASKIN / 최종현	세진사
85	건축과 감각 : The Eyes of the Skin	Juhani Palssasmaa / 김훈	spacetime
86	창의적 사고의 공학 개론	Saeed Moaveni / 박상성	한티미디어
87	권력과 건축공간	THOMAS A. MARCUS	시공문화사
88	건축의 구조	M.SALVADORI, R.Heller	기문당
89	지속가능한 설계 철학 : 건축의 미래	제이슨 맥레넌 / 정옥희	비즈앤비즈
90	건축의 구조 디자인	송호산	기문당

O5 RECOMMENDED BOOKS

[illegible]

